



적극행정 공유대회에서 격려사 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적극행정 추진전략 성과 빛나

도, 성과 공유대회서 광역자치단체 대표로 발표  
적극행정 확산 위한 범업조성 등 추진전략 공유

전북도는 10일 정부세종청사 6층 대강당에서 4개 기관(국무조정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전북도 적극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중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확산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추진전략,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범정부적 적극행정 확산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공유하고, 기관별 추진전략 및 우수사례 공유하여 범업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전북도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은 전라북도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삶과 기업의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

움을 적극적 발상과 실천을 통해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혔다.

전북도의 적극행정 중점 추진사항 중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는 대도약 기획단을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울러, 사전컨설팅 감사와 면책, 공무원의 법률적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제'의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적극행정 중점 추진사항 중 적극행정 문화 조기·정착 측면에서는 지난 6월 적극·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6개사례 시상), 1부서 1과제 보고회 개최(70개 과제발굴), 도·시·군 적극행정 협력체계 구축회의, 적

극행정 활성화 실무 특별전담조직(TF)회의를 실시하여 소통을 강화했고, 대내적인 홍보를 위한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 개설과 팝업창 홍보, 직원 131명이 참여해 152건이 접수된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 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외적으로는 목의 전광판 홍보, 도 홈페이지와 전북 소통대문에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였고,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송출하여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소극행정 해약을 위해 감사관실에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상시 신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극행정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행정처리 지연·선례답습·규제남용·진입제한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향후계획으로 조례 제정·공포(10월)후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11월)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준비하고, 12월중에 우수공무원(사례)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10월 28일에는 전청원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와 이국종 교수의 '적극행정 지금이 끝 든아워'라는 주제로 직원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식 가져

전북도는 10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원광대학교병원) 개소식을 갖고, 지역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원광대학교병원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13억원 사업비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조정 역할과 장애인건강

보전사업의 전달체계 구축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의 재활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도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남원시·부안군 선정...국비 12억원 확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남원, 부안 2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부안군 '격포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남원시 '광한루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 2020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실시해 선정됐다.

부안군 '격포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20~

22년까지 변신면 격포리 대명리조트와 격포해수욕장에 인접한 격포터미널 인근 보도 및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 보행공간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비 2억원을 확보한 남원시 '광한루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은 기존 보행자우선도로와 연계하여 광한루 동측 월매길을 중심으로 보행자가 우선될 수 있는 보행공간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선정된 전주시 '전주 객사길 보행환경개선사업(2년)'과 남원시 '용성로 보행환경 개선사업(3년)'은 행안부 계속사업 진행상황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비 국비 7.5

억원(전주 5, 남원 2.5)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보도 신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일방통행체계, 교통정온 화기법을 적용하는 등 도로폭이 협소한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여건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보행단절 구간의 연계, 교통약자 보호,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자 통행 안전성이 높아지며, 더불어 지역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농기원, 경복서 생활개선회원 역량개발 교육 실시

전북도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에서는 전북과 경북 생활개선회원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지역리더로서 리더십 배양 및 식품 가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회원 역량개발 교육을 경복서에서 10월 10일부터 1박 2일간 실시한다.

영·호남의 화합과 농업·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전북도와 경북도 생활개선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 서로 방문, 격려하면서 우의를 다져왔으며, 올해 경북도청에서 전북연합회 임원 35명, 경

북연합회 임원진 55명과 만남식을 가졌다. 이날 농업기술원 김학주 원장은 "전북과 경북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영·호남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수정책과 사례공유로써 생활개선회가 한층 더 발전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개선경북연합회 이진희 회장은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1박 2일간 완주 농업인 전문 가공센터, 김제 향토음원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전북의 맛과 멋을 충분히 느끼고 왔다"며 "경북 선

진농업기술도 습득하고, 농식품가공 체험을 통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 정미숙 회장 "경북 회원들이 따뜻이 반겨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북도 연합회와 뜻을 함께 해 문화교류로 소통하며 생활개선회의 더 큰 발전을 이끌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는 1박 2일간, 영호남 선비에게 배우는 리더십, 영호남 소통교육, 농식품 가공 체험, 유네스코 등재 도산서원 탐방, 경북 향토음식 체험 등 경북 지역의 우수 현장을 벤치마킹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내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개최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전북콘진)은 내일 낮 12시부터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은 전라북도와 전북콘진이 대중음악 콘텐츠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 중인 '레드콘 음악창조소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지난 4월 공개오디션 '빨간 마이크'를 통해 선발된 제3기 뮤직션의 쇼케이스(총5팀)가 먼저 선보이고, 10cm,

데이브레이크, 소란 등 국내 인디음악계 최고 뮤지션들의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은 지난 7월 티켓 오픈 당일 예매율 66%, 일간 예매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전국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4천여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 통한 공공의료실현 노력

전북도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이 도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부터 전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에 건립되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전주시 예수병원 인접부지(완산구 서원로)에 마련되며 낮병동 21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예수병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 교적응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배출을 위해 '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증가하는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 필요로 총사업비 270억원, 150여 병상 규모의 권역재활병원 신규 건립을 중앙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도내 재활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등 인 프라 구축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